

# 신안군, 청소행정분야 직무역량 강화에 힘써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등 실무능력 향상 목적 20명 참석 폐기물관리 읍면평가 우수 '흑산·도초·팔금면' 상장 수여도

신안군은 지난 25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청소행정분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2023년 신규 폐기물 정책 공유와 역점사업 사전 대비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군·읍면 담당자 2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청소행정 서비스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폐기물관리 읍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흑산·도초·팔금면에

상장을 수여하고, 담당자를 격려했다.

군은 천사·임자대교 개통으로 지도읍 등 8개 읍면이 연륙되고 퍼플섬의 UN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신안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등 방문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주요 관광지 청결 유지, 시설물 적정 운영,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제도 확대 시행, 서울특별시 노원·마포구와의 아이스팩 재활용 협약 체결, 버려지는 현수막 재활용, 현수막 경진대회 개최, 종이팩·폐전지 교환 등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신안군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와 자원의 절약, 환경보호를 위해 폐농약류 무상 수집 처리와 폐가전 방문 수거 서비스 도입을 준비

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23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개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신안=이덕주기자

## 함평군 보건소, 치매 인식개선 위해 '온 힘'

함평군이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함평군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군은 나산면 용수마을 등 치매안심마을 5곳을 지정해 ▲인지강화교실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파트너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기에 지난 6일 성황리에 폐막한 '2022년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장식에서 치매예방교실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플래시몹 행사를 추진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영암군가족센터 "행복한 디저트 클라쓰로 오세요"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에서는 다음 달 6일과 13일 2회에 걸쳐 관내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온 가족 취향저격 행복한 디저트 클라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디저트 만들기를 통해 삶의 활력을 높이고 가족 간의 친밀감 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문강사의 지도로 과일타르트와 타코야키 등을 함께 만들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접수 기간은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로, 2인 이상 가족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영암군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yeongam.familyne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암=조대호기자

## 무안군,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무안군은 최근 치매안심마을 소재 일로읍 월암리와 몽탄면 사창1리 경로당에서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치매안전망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안전환경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지난 2019년 일로읍 월암리를 시작으로 2020년 몽탄면 사창리까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치매안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 프로그램, 치매안심센터 미등락자의 등록 지원과 집중사례관리 운영 등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 노광이 청년작가, 영광의 아름다운 명소 사진 기탁



13점(11,800만 원 상당)

청년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노광이(영광 사진관 대표)씨는 지난 24일에 '사물과 풍경, 일상 속 영광'의 주제로 한 영광 명소와 숨은 명소 사진 13점(11,800만 원 상당)을 영광군에 기탁했다.

이는 지난 9월에 제1회 개인 사진전에 전시됐던 작품들로 타지를 떠돌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 정착하며 자신이 느낀 아름다운 영광을 담아내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영광=서희권기자

왼쪽부터 노광이 영광사진관 대표, 강종만 영광군수, 김오례 배우자

## 목포시립합창단, 제78회 정기연주회 개최

12월 8일 저녁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에서 '카르미나 부라나' 공연

목포시가 오는 12월 8일 오후 7시 30분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목포시립합창단 제7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평생에 한번은 들어보아야 할 합창곡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작곡가 칼 오프프의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Carmina Brana)'를 노래한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칼 오프프가 독일의 문헌학자 슈멜러가 편찬한 중세 세속시 모음집의 필사본에서 강렬한 자극과 영감을 받아

200여편의 시에서 24편을 엄선해 1년 만에 완성한 곡이다.

전곡이 시의 특성을 살려 독특한 리듬과 선율로 진행되는데 타악기의 조화로운 울림이 반주와 춤곡이 더해진 다채로운 합창이 특징이다.

이번 연주회는 한국 최고의 소프라노 박미자 교수, 테너 강동명 교수, 바리톤 김동섭 교수를 솔리스트로 초청하고, 합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천시립합창단(지휘자 이태

원)와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김태영)도 초대한다.

또한, 동신대학교 현대무용팀, 케록스 타악 앙상블팀, 엘렉톤 연주의 선두주자인 김수희 교수 등의 협연으로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립합창단 공연을 통해 힘과 위안을 얻어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보다 더 밝고 힘차게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온라인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http://www.ticketlink.co.kr))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